

< 2022년 교회표어 >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16:11, 막1:15, 행2:47)

새문안교회,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 사도신경
- 찬 송 498장
- 기 도
- 성경본문 [마태복음 28:18~20]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삶 나누기

선교지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뒤에, 그 지역에 21개의 교회를 연이어 개척하여 세운다면 이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개척한지 2개월이 지나 두 달씩 전도여행을 하고 이를 매년마다 시행을 하며, 교회 뿐 아니라 병원을 짓고, 중고등학교, 나중에는 대학까지 세워 나간다면 이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지도자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세운 교회가 이제 막 조직이 탄탄해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질 때인데,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새문안교회 창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1887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새문안교회 전신인 정동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정확히 8년이 지나 1895년 지금의 서교동교회를 세우고, 이후 20개의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초기 새문안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이었는지, 교회가 세워진지 23년 지난 1910년에는 서울, 경기도에 7개 군데의 예배처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전부 독립해서 교회로 세워집니다. 어머니교회라는 칭호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새문안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교회 자신의 존립과 양적 부흥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뒤 6년 지난 1893년에는 한양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언더우드와 교인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콜레라 퇴치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를 본 고종황제가 교회를 너무 고맙게 여겨 포상금을 내리게 되고, 이 포상금이 새문안교회의 첫 번째 예배당을 세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어머니교회라 불리는 새문안교회는 이미 시작부터, 교회 자신의 존립과 양적부흥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 자체의 유지와 발전과 부흥을 존립목적으로 가졌다면, 이렇게 사역을 전방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덩치를 키우고, 부흥을 이뤄 재정적 힘을 갖고, 조직력을 갖춰 힘을 기른 뒤에 선교를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문안교회를 9월 마지막 주에 창립한 후, 두 달 뒤인 그 해 11월에 북한 전도여행을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매년마다 하여 그보다 3년 늦게 들어온 마펏 선교사가 북한선교를 할 때 엄청난 선교의 결실을 거두는 토양을 만듭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고, 한국어문법사전을 발간하며,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YMCA를 창립해서 청년기독교 운동에 나섭니다. 당연히, 이제 막 개척된 새문안교회와 교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사역들에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새문안교회는 교회를 '자신을 위한 존재'로 보지 않고, 교회는 철저히 민족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 속에 파송되는 공동체이다!' 라고 확고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요, 본질이요,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적 가치와 사명을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세 가치를 말씀합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19v).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기 인생을 주님께 거는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19v). 즉, 생명 없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있는 세례식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 중 하나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20v). 교회는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선교사가 되어 선교적 사명을 띠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오직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습니다.

‘선교적 교회’라 함은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선교’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는 해외선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목적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자체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선교적 발상이나,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초기 선배 크리스천의 발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도 자신도 아직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을 위해 자기를 개방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열고, 자기를 헌신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사재를 털어 한양에 퍼진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앞장서고, 목사의 집과 자기들 집을 개방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서울과 경기도에 예배처소를 개척하고, 그곳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교역자를 보내주고, 교사를 보냅니다. 교회 재정이 빠듯한데도 사회구제와 봉사에 앞장섭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요, 새문안교회가 본래 생각한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이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고, 이 이스라엘이 만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선교적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선교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영성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기 위해 나머지를 ‘들에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선교적 교회의 영성을 ‘잃은 양’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

습니다. 양 백 마리를 가진 목자는 한 마리를 잃으면 자기 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으러 나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가, 한 마리는 찾았지만 아흔아홉 마리가 들에서 늑대와 들짐승에게 노략질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에 실패한 목자이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애간장이 녹아질 정도로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양은 신체구조상 2-3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으로 숨을 거두기 때문에, 99마리를 한가롭게 우리에 넣고 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 나머지를 '들에 두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영성이요, 언더우드의 심정이며, 초기 새문안교회 선배들의 영성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다시 꿈꾸는 새문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문안교회에 이런 영성이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 있는지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문안은 새문안을 위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자체 행사와 유지를 위해 예산을 쓰느라, 세상을 위해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쓸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여섯 번째 예배당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목적으로 어머니교회가 지은 건물입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시민을 위해 쓸 수 있어야지요. 새문안 홀을 돈 없는 젊은이의 결혼식장으로 제공하듯 말입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회의 존립목적을 선교에 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선교적 교회를 다시 꿈꾸는 새문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눔

1.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나요?
2. 새문안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해할 때,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은 더욱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